

박영수·윤석열·한동훈 모두 화천대유 이해 당사자



〈19면에서 계속〉 또 서평에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PD수첩' 관계자들의 수사를 맡아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휘부와 갈등을 겪고 검찰을 떠난 임수빈 변호사 역시 채동욱과 함께 손잡고 일하고 있다.

채동욱과 임수빈 변호사는 1995년 '12.12., 5018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인연이 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검찰청에서 공안과장과 수사기획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는 옵티머스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부실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수사는 확정되지 못하고 역시 어렵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이후 부정선거 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2009년 2월 26일 박영수가 대표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를 통합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한 이규철 특별감사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다.

SK 최태원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 SK C&C의 배임 횡령죄로 감옥에 있었다. 이때 SK 최태원 회장의 변호를 맡은 SK텔레콤 법률고문 남영찬 사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이직한다.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

곽상도 의원은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였는데 최순실이 정권 초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곽상도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 이는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사면 발표 2일 전에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박영수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있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체로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남욱은 최태원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박영수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박영수가 2017년 특검이 됐는데 박영수는 특검에서 SK가 미르재단 등에 준 93억 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삼성 이재용 회장에 적용된 뇌물죄의 범리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최태원 회장은 빼주기로 공모를 한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가 된다. 그 후 박영수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까지 시키고 아파트까지 제공한다.

화천대유는 '킨앤와이스'라는 SK 그룹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351억 원을 빌려주면서 시작했다. 킨앤와이스의 천하동인 4호의 투자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남욱 변호사이다. 또 천하동인 6호의 투자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조현성 변호사이다.

조현성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브로커였고 윤석열이 담당 수사관이었고 조현성의 변호인이 박영수였다. 조현성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았고 이후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가 된다. 모두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한동훈의 장인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인 법무법인 강남이다.

추가로 참고하자면 천하동인 3호 이사는 김만배 씨 누나이다. 윤석열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가 2019년 5월인데 2019년 4월 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의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19억에 매입했다. 그렇게 박영수·윤석열·한동훈 모두 화천대유에 이해관계자들이었다. 그걸 윤석열·한동훈에게 수사하라고 하니 수사가 될 리가 없다.

화천대유를 수사하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이 죽었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이모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 참고인

중소기업 대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가 죽었다.

한동훈이 2003년 당시 최태원을 구속해 최태원과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2022년 12월 6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김현정 부장판사는 남편 최태원 측 이혼 청구는 유책 사유 제공의 사유로 기각하고, 아내 노소영 측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반소피고) 최태원이 피고(반소원고)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판결한 김현정 부장판사는 다음해 퇴직 후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2023년 '바른'은 HD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산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과 SK에코플랜트 4400억 원대 PF약금 자문을 맡아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 SK에코플랜트는 상장되지 않은 최태원의 개인 회사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강훈 변호사의 딸 강세원은 이명박 정부에 행정관으로 김연장 변호사 출신인데, 한동훈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또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같은 회사 출신이다. 진은정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였다. 즉 SK 최태원은 한동훈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혼 소송 담당 판사 김현정에게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전관예우 차원의 뇌물을

산인 90%이다.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는 가장 큰 조직은 흑사회이다.

참고로 한동훈이 추진 중인 이민청의 일환으로 투자이민제를 악용해 투자이민제를 최초로 승인 받은 특혜 사건이 엘시티(LCT) 게이트이다. 당시 부산의 폭력조직 20세기파와 결탁해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인 이영복이 해운대에서 오션타워에서 유혹주점을 입주시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였다.

채동욱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도 오션타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마담이다. 채동욱은 내연녀와 사이에 혼외자 사실이 밝혀지며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당시 채동욱을 사퇴시킨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다. 채동욱은 혼외자 자식 논란으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다음 해 채동욱 내연녀는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큰 사람으로 박지원의 오른팔이다. 박영수는 조폭 전문 강력통, 특수통이란 말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바다이야기 사건도 보면 전남영광파가 해피머니를 장악했고 상품권 발행 사업도 장악했다. 김태춘의 양아들 김재현은 위조지폐 감별기 회사를 인수했다. 전남영광파는 김태춘의 서방과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다.

그들을 키운 것은 노무현이고 풀어준 것이 채동욱·박영수였다. 조폭을 잡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잡았다. 그들은 절대 보수가 아니다. 그들

당시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권순일 대법관인데, 권순일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과거 환송했다. 이승택 중앙선거위원장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이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대륙아주 고문이다. 이상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원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이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 윤상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다. 김석수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륙아주 고문이다.

과거 2012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 이용복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최순길 특검의 박영수 특검에 특검보로 발탁됐고 2021년부터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다. 또 함께 특검보를 맡은 윤상화 변호인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가 된다. 그들은 "선거법 강요"라는 책을 함께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복은 "정치자금법 강요"라는 책과 "위탁선거법 강요"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용복은 '대륙아주'에서 선거 전담 법률조직을 발족하고 센터장으로 활동했다. 이용복은 2023년

'대륙아주'이다. '대륙아주'는 한동훈의 장인이 고문으로 있고 박영수가 2009년 '대륙'과 '아주'를 합병하여 만든 법무법인이다.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과 양정철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 1년에 한 번씩 과일이거나 영양식품, 정육 등과 같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삼부토건에는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국무총리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다.

삼부토건은 2015년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중국 DST로봇(현 휴림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중국 DST로봇 최대주주인 류동하이와 홍콩 상장사 타이탄 그룹의 회장 장우위법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DST로봇의 회장은 김재현으로 김재현은 김태춘의 양아들이다. DST로봇은 현재 휴림로봇으로 사명을 바꿨는데 휴림로봇의 대주주는 HNT이다. HNT의 대주주는 코디엠이다. 이낙연 대표의 동생 이계연이 코디엠의 실제 대표이자 휴림로봇의 부사장으로 있다.

참고로 김태춘은 김태춘의 서방과·조양은의 양은

법무장관 오른 韓 “박근혜정부 수사가 내 인생 화양연화” 소감 밝혀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보수우파 궤멸시켜 놓고 국힘 대표된 건 코미디 중앙선관위원장 출신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고문 지내



2009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합병식 및 박영수 대표변호사 취임식.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전에 2009년에도 이인규가 노무현이 죽음으로써 퇴직 후 2009년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갔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2024년 1월 12일 최태원의 항소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의 강상욱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또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자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NCKK를 예방했다. 최태원 회장이 2016년 출소 후 방문한 나들목교회 역시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NCKK이다. 최태원은 2003년부터 이 교회는 다녔다. 즉 한동훈은 최태원과 친하다.

종합해 보면 한동훈은 이인규·채동욱과 한 팀이다. 박영수·윤석열도 같은 팀이다. 한동훈은 보수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채동욱은 전두환을 기소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관이었다. 또 전두환으로부터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받아 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도 받아냈다. 그때에는 아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들은 보수 대통령들을 모두 구속한 이들이다.

채동욱은 마약과장으로 대한민국 마약 전문가이다. 특히 국내 히로봉 전문가인데 히로봉은 중국

은 지난 20년 동안 보수를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채동욱·박영수와 같은 이들 아래에서 일하던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한동훈은 그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내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 관련 수사일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정부 질문에 답했다.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한국 보수우파 진영을 궤멸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만나니 칼날을 휘두르던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국민의 힘당의 대표로 등장한 것은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이런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공모했다. 그들을 타도해야 선관위 수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부정선거 재판 재판부 담당 판사는 조재현 대법관은 대륙아주 변호사 출신이다. 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법관으로 경남 양산을 선거무효소송과 서울 영등포를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을 맡아 진행하면서 가짜 투표표도 충분히 의심되는 수천 장의 투표표를 유효표로 처리했다.

부터 현재까지 KT 법무실장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국민의 힘에도 '대륙아주' 출신들이 많다. 나경원·오세훈·김재원이 대표적으로 대륙아주 출신들이다. 특히 김재원은 국민의 힘 선거운동을 맡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조차 낼 수 없도록 막았다. 김재원은 중국 푸단대학 한국연구소 고문 및 중국 베이징대 국제대학원 연구학자로 있다. 또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있으면서 당시 윤석열 특검과 인연이 있다. 김재원은 '대륙아주'에서 '입법'과 '선거' 관련 자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직은 대륙아주 출신 변호사로 구성돼 있고 부정선거 소송 담당 대법원 판사도 대륙아주 출신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 변호사도 대륙아주 변호사이다. 쉽게 말하면 재판에서 판사와 피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건데, 사법절차에서 철저히 급기시하고 있는 이익 충돌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스타항공 게이트 이후 이스타항공 회생 담당 변호사가 대륙아주 최효종 변호사이다. 또 한티시스템의 비자금 형성 관련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

이파·이동재의 OB동재과 등 소위 호남계 3대 조폭 중 한 명이다. 이해찬이 민청련 30주년 추모식에서 김근태 의원을 추모하며 "당시 근태 형이 김태춘 집에서 체포됐다"고 언급할 정도로 김태춘은 운동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국제피파는 김태춘의 서방과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가 국제피파를 수사하다가 국제피파가 사시미 테러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국제피파에는 기업 투자 및 M&A(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박장훈(가명)이 있다.

그들은 이상필과 함께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하여 옵티머스 펀드를 설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피파와 부두목 조씨의 돈을 빌리고 갖지 않아 부두목 조씨에 의해 손해당한다. 국제피파와 부두목은 그 일로 구속됐다. 또 김재현은 셉텔리언 대표로, 이상필과 옵티머스를 설계한 핵심인사이기도 하다. 서로 한 통속인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재현은 2012년에 위조지폐감별기 제조 회사 에스비엠(SBM)을 인수했다. 에스비엠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 중이었던 신우아이티와 라이브코드가 합병하여 에스비엠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홍석현 회장이 8%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이다. 회사는 매출 278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을 달성한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 21면에서 계속